

心, 腦와 神明의 관계에 대한 고찰

殷哲玟

又石大學校 韓醫科大學 原典醫史學教室

內容摘要

心腦与神明之間的關係

殷哲玟

這篇文章闡述了有關“誰主神明”的主要學術淵源及其觀點。『內經』問世以來，醫學界持“心主神明”的觀點，至中國明清時期以後才出世“腦主神明”的觀點。而明代醫家李時珍的“腦爲元神之府”說被認爲對前人“心主神明”說的首次修正。爲了澄清“腦主神明”說的重要意義何在，這篇文章在分析“腦爲元神之府”說的基礎上，探討了心腦与神明之間的關係。

I. 緒論

한의학에서 神明은 생명이 활동하는 규율 내지는 인간의 정신활동을 뜻한다. 따라서 神明은 인간의 생명활동을 논하는 데 있어 가장 중심이 되는 개념이라 할 수 있으며, 자연히 神明과 관련하여 역대문헌에서 다양한 내용들을 찾아볼 수 있다. 예를 들어 『素問陰陽應象大論』에서는 “陰陽者，天地之道也，萬物之綱紀，變化之父母，生殺之本始，神明之府也，治病必求于本.”라 하여 神明이 陰陽의 규율을 따름을 말했고, 『素問靈蘭秘典論』에서는 “心者，君主之官，神明出焉”이라 하여, 『靈樞·邪客』에서 “心者，五臟六腑之大主，精神之所舍也”라 한 바와도 같이 인간의 정신활동으로서의 神明이 心에 의해 주관되고 있다고 하였다.

앞의 예와 같이 神明은 그 의미가 매우 포괄적인데, 특히 인간의 정신활동이라는 관점에서 神明이 心에 귀속된다는 점은 한의학의 중요한 이론적 특징 가운데 하나이다. 그런데, 중국의 경우 明代 이후 인간의 정신활동을 설명하면서 腦와의 관련성을 강조하는 경우가 많아졌고, 현대에 이르러는 서양의학의 광범위한 영향으로 인해 明代 이후 제기된 腦와 관련된 학설들이 많은 경우에 있어 정신활동은 腦가 주관하고 있다는 주장의 근거로 활용되기까지에 이른 것을 볼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에서는 근래 이와 관련된 다수의 논문들이 발표되었다. 그 다양한 논의들을 살펴보면 이 문제와 관련하여 가장 비중있게 논의되는 역대의가들로는 李時珍과 王清任이 있다. 李時珍은 『本草綱目』에서 “腦爲元神之府”라는 腦에 관한 저명한 논점을 제시했고, 王清任은 『醫林改錯』에서 “靈機記性不在心在腦”라는 견해를 밝혔는데, 이와 같은 주장들은 인간의 정신활동을 주관하는 것이 과연 『內經』에서 말한 바와 같이 心인가 아니면 腦인가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켰으며, 이에 張錫純(1860-1933)은 心과 腦가 공조하여 정신활동을 주관한다는 견해를 제시하게 되었다.

위와 같은 과정을 볼 때 몇 가지 생각해 볼만 한 점은 李時珍, 王清任 등의 腦에 대한 인식이 과연 전통적인 『內經』의 관점을 부정할 만한 것이었느냐를 비롯하여 心, 腦와 神明은 과연 어떤 관계에 놓여 있는지에 대한 것 등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문제들에 대해 이 글에서는 먼저 神明의 개념에 대해 생각해 보고, 다음으로 腦와 神明의 관계를 논하면서 주로 李時珍이 언급한 “腦爲元神之府”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지금까지의 연구 결과들을 참고하여 정리하고자 한다.

II. 神明의 개념

神明이라는 용어는 한마디로 天地와 인간의 정신을 뜻한다고 볼 수 있다. 神明의 생겨남은 天地의 陰陽이 서로 통한 결과로서, 사람과 자연의 회통, 변화는 결국 神明의 德에 통하는 데 그 지극함이 있다. 이와 같은 관점은 고대의 여러 전적을 관통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中國 先秦時期的 저작으로 郭店楚簡의 문장들 중 하나인 「太一生水」에서는 ‘太一→水→天地→神明→陰陽→四季→滄熱濕燥→歲’¹⁾의 우주모형을 보여주고 있다.²⁾ 이는 天地가 神明을 정신으로 하여 陰陽, 四時, 滄熱, 燥濕 및 세계의 일체를 生한다는 뜻으로서, 神明은 가히 일체 사물을 主宰하는 위치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인간의 性情도 결국은 天地의 神明으로부터 생겨나는 것인즉, 이는 陰陽의 변화와 天道의 유행에

1) “大(太)一生水, 水反輔大一, 是以成天. 天反輔大一, 是以成地. 天地□□□[復相輔]也, 是以成神明. 神明復相輔也, 是以成陰陽. 陰陽復相輔也, 是以成四時. 四時復相輔也, 是以成倉熱. 倉熱復相輔也, 是以成濕燥. 濕燥復相輔也, 成歲而止. 故歲者, 濕燥之所生也. 濕燥者, 倉熱之所生也. 倉熱者, 四時者, 陰陽之所生. 陰陽者, 神明之所生也. 神明者, 天地之所生也. 天地者, 大一之所生也. 是故大一藏於水, 行於時.”(「太一生水」第1-6簡)

2) 歐陽禎人, 「《太一生水》與先秦儒家性情論」, 簡帛研究, 2003.4.

의한 天地와 인간 사이의 감응에 의한 것이다. 또한 『左傳』의 이른바 ‘天生六氣’說에 의하면 사람의喜怒哀樂의 감정이 六氣에서 기원하며, 인간의 生老病死 또한 六氣의 변화에 의한 것이라고 하였다. 이로 인해 天道, 六氣와 어울려 天地의 性과 합하여 하나가 되어야만 인간의 생명이 장구할 수 있고 그 性情이 도야되며, 아울러 인간의 心志 또한 최종적으로 이상적인 경지에 다다를 수 있다고 보았다. 이처럼 天地와 인간 사이의 감응을 가늠케 하는 것은 天地와 인간이 공유하는 바로서의 神明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³⁾

이러한 바탕에서 神明의 개념은 또한 이른바 ‘道’와 관련되어 언급되기도 하였다. 예를 들어 『淮南子·精神』에서는 “天靜以清，地定以寧，萬物失之者死，法之者生。夫靜漠者，神明之宅也。虛無者，道之所居也。”라 하였고⁴⁾, 馬王堆漢墓帛書 『經法·名理』에서는 “道者，神明之原也。神明者，處于度之內而見于度之外者也。處于度之內者，不言而信，見于度之外者，言而不可易也。處于度之內者，表面不可移也，見于度之外者，動而不可化也。靜而不移，動而不化，故曰神。神明者，見知之稽也。”라 하였는데, ‘道’의 신묘한 작용으로서의 神明이 일종의 초자연적인 힘이며, 모든 만물 가운데 존재하여 부단한 작용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 것이다.⁵⁾

그런데, 神明이란 용어는 인간의 정신활동의 전반을 포괄하는 가장 적합한 용어가 될 수 있는가? 이상의 내용을 살펴보면, 神明의 개념을 인간의 정신활동이란 관점에서 볼 때 인간의 구체적인 사유나 판단, 즉 흔히 말하는 ‘마음’을 나타내는 뜻으로 쓰기에는 다소의 모호함이 있다고 느껴진다. 그렇다면 이 ‘마음’을 뜻하는 용례로는 『靈樞·本神』에서의 “所謂任物者，謂之心”과 같은 경우가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心’을 굳이 神明과의 관계라는 면에서 본다면 神明의 德과 통하는 가능성을 지닌 존재라고 볼 수 있다. 즉 인간의 ‘마음’은 神明을 바탕으로 기능하고 있으며 이 ‘마음’을 흔히 말하는 ‘의식’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인간의 정신활동을 주관하는 곳이 心이나 腦냐 하는 문제는 인간의 ‘마음’이 어디에 존재하느냐 하는 문제라기보다는 그 處하고 있는 바를 규명하기 어려운 인간의 ‘의식’행위의 바탕이 되는 神明이 인체 내에서 작용하는 藏象적 근거를 밝히는 일이 될 것이다.

Ⅲ. 腦와 神明

1. 腦의 정신활동에 관한 역대학설

이 글에서 밝히고자 하는 腦와 神明의 관계를 논하기에 앞서 먼저 腦에 관한 역대의 학설들을 살펴보기로 한다. 腦에 관한 인식의 흔적은 이미 문자가 만들어지던 이른 시기

3) 同上

4) 熊鐵基, 「對“神明”的歷史考察」, 郭店楚簡國際學術研討會論文集, 湖北人民出版社, 2000.5, p534

5) 彭浩, 「一種新的宇宙生成理論」, 郭店楚簡國際學術研討會論文集, 湖北人民出版社, 2000.5, p539

부터 있어왔던 것을 알 수 있는데, 예를 들어 許慎의 『說文解字』에서는 ‘思’자의 字形을 설명하면서 “從心從囟”이라 하여 ‘思’자가 ‘囟’과 ‘心’의 결합이라 하였으며, 여기서 ‘囟’은 頭腦를 뜻한다. 그리고, 이에 대해 熊忠은 『古今韻會舉要』에서 “自囟至心, 如絲相貫不絕也.”라고 해석했고, 朱駿聲은 『說文通訓定聲』에서 “思者心神通于腦, 故從囟.”이라 하였으며, 郝懿行은 『爾雅義疏』에서 “人從囟自心, 如絲相貫, 心囟二體皆慧知所藏, 人之思慮生于心而屬于腦.”라 하여, 인간의 사고과정이 心, 腦 모두와 관련되는 것으로 인식했던 것을 알 수 있다.⁶⁾

역대 의학저작의 경우를 보면 먼저 『內經』에서는 腦에 대해 『靈樞海論』의 경우 “腦爲髓之海, 其輸上在于其蓋, 下在風府.”라 하였고, 『靈樞經脈』에서는 “人始生, 先成精, 精成而腦髓生.”이라 하였으며, 『素問脈要精微論』에서는 “頭者精明之府, 頭傾視深, 則精神將奪也.”라 하는 등, 기본적으로 “腦爲髓之海”라는 점에서 출발하여 腦에 대한 어느 정도의 기능적 인식이 나타나고 있다. 한편 『難經』에서는 督脈이 腦로 들어간다고 밝혀 후세의 醫家들이 “頭爲諸陽之會”라 한 바의 근거가 되었고, 『金匱玉函經·卷一論治總則』에서는 “頭者, 身之元首, 人神所注”라 하였으며, 張仲景의 제자로 알려진 衛汛의 저작인 『顛顛經』에서는 “元神在頭曰泥丸, 總衆神也.”라 하여, 腦와 神의 관계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唐代의 의가 孫思邈은 『千金要方』에서 “頭者人之元首, 人神之所注, 氣血精明三百六十五絡, 皆上歸于頭, 頭者諸陽之會也.”라 하였고, 宋代의 의가 陳無擇은 『三因極一病證方論』에서 “頭者諸陽之會, 上丹產于泥丸宮, 百神所聚”라고 하여 역시 腦에 대한 일정한 정도의 인식을 지니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이후 明代에 들어서는 정신활동과 관련된 腦에 대한 다양한 언급들을 찾아볼 수 있는데, 먼저 李時珍의 경우를 보면 『本草綱目·辛夷』에서 “腦爲元神之府, 而鼻爲命門之竅. 人之中氣不足, 清陽不升, 則頭爲之傾, 九竅爲之不利.”라 하였는데, 이후 이 “腦爲元神之府”라는 언급은 후대 의가들의 腦에 대한 인식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그리하여, 喻嘉言은 『寓意草』에서 “頭爲一身之元首, 穹然居上. ……其所主之臟, 則以頭之外殼包藏腦髓. 腦爲髓之海, 主統一身骨中之精髓. ……內經原有九臟之說, 五臟加腦髓骨脈膽女子胞, 神臟五, 形臟四, 共合爲九, 豈非腦之自爲一臟之主耶. ……身中萬神集會之所, 泥丸一宮, 所謂上八景也.”라 하여 腦를 臟의 하나로 여기면서 인체에 대한 主宰적인 기능을 강조하였고, 清代의 汪昂은 『本草備要·辛夷』에서 “凡人外見一物, 必有一形影留于腦中”, “今人每記憶往事, 必閉目上瞪而思索之, 此卽凝神于腦之意也.”라 하여 腦가 기억기능에 관계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같은 清代의 王學權, 吳謙 등도 腦가 元神之府가 된다는 관점에서 腦에 대해 기술하였는데, 王學權은 『重慶堂隨筆』에서 “蓋腦爲髓海, 又名元神之府, 水足髓充, 則元神清湛而強記不忘矣.”라 하였고, 吳謙은 『醫宗金鑑』에서 “頭爲諸陽之首, 位居至高, 內涵腦髓, 腦爲元神之府, 以統全身者也.”라고 하였다. 이후 王清任은 『醫林改錯』에서 “靈機記性在腦者, 因飲食生氣血, 長肌肉, 精汁之清者, 化而爲髓, 由脊骨上行入腦, 名曰腦髓. 盛腦髓

6) 張俊龍, 「中醫腦理論演進軌迹」, 山西中醫學院學報, 第2卷 第3期, 2001, p43

7) 金香蘭, 「中醫腦髓學說源流考」, 中國中醫藥報, 1997年 第12卷 第5期, p22

者, 名曰髓海."라고 하여 腦가 髓海로서 의식, 사유활동을 주관하고 있다고 하였으며, 한편으로 그는 中風, 癲癇 등의 질병을 腦와 관련하여 설명함으로써 腦에 대한 당대 의가들의 인식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⁸⁾

2. “腦爲元神之府”에 대한 분석

腦에 관한 역대의 학설들을 살펴볼 때 明清代 이후 다수 제기되었던 腦와 관련된 학설들은 사실상 전대의 개념적 테두리를 넘어서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즉 明清代에 제기되었던 학설들은 心에 관한 전통적인 인식을 부정하는 것이라기보다는 心을 보조하는 역할로서의 腦의 기능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明代 이후 腦에 관한 인식에 많은 영향을 미쳤던 “腦爲元神之府”라는 李時珍의 언급도 이전에 비해 달리 새로울 것이 없으며, 서양의학의 영향을 받은 王清任의 경우도 기억 등에 관련된 腦의 기능에 대한 설명이 전대에 비해 해부학적 근거가 명확해진 것일 뿐 결코 腦가 정신활동을 주관한다고 본 것은 아니다. 이에 李時珍이 언급한 바 “腦爲元神之府”에 대한 분석을 통해 정신활동과 관련된 腦의 기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한편으로 心과의 관계를 검토하고자 한다.

1) 元神의 의미

元神이라는 용어는 본래 道家에서 나온 것으로서, 이른바 先天之神으로서의 의미를 지닌다. 즉 人身의 神은 先天之神과 後天之神으로 나뉘는데, 父母의 先天之精이 化한 바의 神이 바로 元神이며, 이는 『靈樞本神』에서 “故生之來謂之精, 兩精相搏謂之神.”이라 한 바와 통한다고 볼 수 있다.⁹⁾ 元神에 대한 언급은 역대 道家典籍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는데, 예를 들어 宋代의 道家 張伯丹은 『玉清金笈青華秘文金寶內煉丹訣神爲主論』(이하 『青華秘文』)으로 약칭)에서 “元神乃先天以來一點靈光也.……元神者, 先天之性也.”라고 하였다. 즉 父母의 精血이 서로 搏하여 생성된 元精은 腎에 藏해져 腎精의 주체가 되는데, 元精은 元氣로 化하고 元氣는 元神을 生하여 精氣神의 三寶가 비로소 갖추어지게 된다. 이는 綺石이 『理虛元鑑』에서 말한 바 “以先天之體論, 則精生氣, 氣生神.”이라 한 것과도 같다.¹⁰⁾ 元神은 元氣의 기능적 표현으로서 元氣의 운동과 작용을 조절하는데, 이로써 先天적인 발육과 後天적인 생명활동의 본원적인 主宰가 된다. 사람이 태어나면 元氣는 인체 생명활동의 원동력이 되며, 元神은 元氣에 작용함으로써 後天적인 생명활동을 가능케 하고 조절한다.

이에 반해 後天之神은 元神과 상대적으로 “欲神” 또는 “識神”이라 불린다. 張伯丹은 이

8) 徐瑛, 「明清時期腦的學說發展舉要」, 遼寧中醫雜誌, 第31卷 第12期, 2004, p990

9) 王勇, 「“腦神”與“心神”辨析」, 山東中醫藥大學學報, 第26卷 第5期, 2002, p333

10) 同上

에 대해 “夫神者，有元神焉，有欲神焉……欲神者，氣質之性也，元神者，先天之性也。形而後有氣質之性也。”라 하였는데，後天之神은 胚胎期에 元神之 작용으로 생겨나 점차 완전해지며，출행한 후에는 後天적인 생명활동을 조절하게 된다.

2) 腦와 元神

腦가 先天元神을 주관한다는 설 역시 道家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道藏·谷神不死論』에서는 “頭有九宮，上應九天，中間中宮，謂之泥丸，又曰黃庭，又曰昆侖，又名天谷，其名頗多，乃元神所住之宮。”이라 하였는데，¹¹⁾ 李時珍은 이처럼 道家의 典籍에서 泥丸 등의 명칭으로 지칭되던 부위를 腦라고 규정하면서 “腦爲元神之府”와 같은 설을 제시한 것이다.¹²⁾ 腦는 元神이 藏해지는 곳으로서，자연히 元神，元氣가 서로 모이는 곳이며，이는 이른바 “腦爲髓之海，眞氣之所聚”(『重廣補注黃帝素問』)이라 한 바와 같다. 腦 가운데 元精，元氣가 충족되면 元神이 藏해지며，元神이 평안하면 元精，元氣를 통솔하여 人體의 生長發育을 조절하는 한편 後天적인 생명활동을 조절하는 내재적인 원동력이 된다. 이에 『雲笈七籤·元氣論』에서 말하기를 “腦實則神全，神全則氣全，氣全則形全，形全則百關調于內，八邪消于外.”라고 한 것이다.¹³⁾

한편 “腦爲髓海”라고 하였듯이 元精은 腎에 藏해지고 髓로 化하여 腦를 채우는 것인데，이에 『靈樞經脈』에서도 “人始生，先成精，精成而腦髓生.”이라 하였다. 그러므로 腎 가운데서 元精이 생성된 후 먼저 腦髓가 생성되고 元神도 이를 따라 생겨나며，腎 중의 元精은 부단히 腦髓를 채움으로써 元神이 化生하는 원천이 된다. 이에 清代의 程杏軒은 『醫術雜病匯參』에서 “髓本精生，下通督脈，命火溫養則髓益充。……精不足者，補之以味，皆上行于腦，以爲生化之源.”이라 하고，¹⁴⁾ 張錫順은 『醫學衷中參西錄』에서 “腦爲髓海……究其本源，實由腎中眞陰眞陽之氣，醞釀化合而成，沿督脈上升而貫注于腦.”라고 한 바，腎精은 腦髓가 化生하는 본원이 되고 腦髓는 元神이 化生하는 본원이 되니，腦는 元神을 주관하여 腎命이 작용하는 바의 外延이 된다. 따라서 腦는 이른바 腎命之使로서 생리적 계통상 腎에 귀속되는 것이라 볼 수 있다.¹⁵⁾

11) 同上

12) 道家의 典籍에서는 약 4세기 무렵，즉 중국 晋代부터 腦의 정신활동에 대한 비교적 상세한 기술을 찾아 볼 수 있는데，대표적인 예로는 東晋 魏華存의 『黃庭內景經』과 元代 趙友欽의 『金丹正理』가 있다. 『黃庭內景經』에서는 “泥丸百節皆有神”，“九室正虛(墟)神明舍”라 하였는데，여기에서 “泥丸百節”이라 함은 腦의 많은 주름을 의미하고，“九室”은 腦에 9개의 방이 있다고 본 것이다. 그리고，『金丹正理』에서는 “頭有九宮，上應九天，中間一宮，謂之泥丸，又曰黃庭，又名昆侖，又名天谷，其名頗多，乃元神所住之宮，其空如谷，而神居之，故謂之谷神。神存則生，神去則死，日則接于物，夜則接于夢。”이라 하여，주간의 일처리나 야간의 꿈 등의 정신활동이 腦의 기능에 의한 것으로 보았다. (張俊龍，「中醫腦理論演進軌迹」，山西中醫學院學報，第2卷 第3期，2001，p44-45)

13) 同上

14) 徐瑛，「明清時期腦的學說發展舉要」，遼寧中醫雜誌，第31卷 第12期，2004，p990

15) 王勇，「“腦神”與“心神”辨析」，山東中醫藥大學學報，第26卷 第5期，2002，p333

3) 心主後天之神

元神이 先天之神으로서 腦에 藏해져 생명활동의 본원적인 동력이 되는 것이라면, 사람의 後天적인 생명활동은 元神에 의한 조절로만은 부족하며 반드시 後天之神의 작용이 있어야만 각종 생명활동이 조화롭게 통일될 수 있다. 이에 心은 後天之神을 藏함으로써 五臟六腑의 君主가 되어 인체의 後天적인 생명활동의 중심이 되는데, 즉 『素問靈蘭秘典論』에서 “心者, 君主之官也, 神明出焉.”이라 하고, 또한 『素問靈蘭秘典論』에서 “心者, 生之本, 神之變也.”라 한 바와 같다.¹⁶⁾ 이와 같은 後天之神의 생리적 기초가 되는 것은 水穀之精으로부터 생겨나는 血과 氣인데, 『素問·八正神明論』에서 “血氣者, 人之神.”이라 하고 또한 『靈樞本神』에서 “脈舍神”이라 하였듯이, 心神은 脈과 血氣의 흐름을 통해 臟腑의 기능을 조절하는 작용을 발휘함으로써 이른바 形과 神이 합일되는 통일성을 갖추게 된다. 이로부터 後天之神은 『靈樞本神』에서 “所謂任物者謂之心”이라 한 바와 같은 ‘意識’ 활동의 직접적인 기초가 되며, 사람의 七情 내지 五志와 같은 五臟의 감정 상태를 主宰하는 역할을 한다.

4) 元神과 心神의 관계

腦 중의 元神은 腎의 元精, 元氣로부터 생겨나고, 心神은 先天元神의 작용을 통해 생겨난다. 이는 『靈樞天年』에서 “血氣已和, 營衛已通, 五藏已成, 神氣舍心, 魂魄畢具, 乃成爲人.”이라 한 바와 통한다고 할 수 있다.¹⁷⁾ 즉 胚胎기에 腦 중의 元神이 아래로 心에 깃들면 心이 통솔하는 魂, 魄 등의 化生을 자극하여 形神이 합일된 인체가 형성된다는 것이다. 출생한 후 心神은 元神의 推動 및 先後天之精의 滋養을 받아 점차 성숙해짐으로써 이른바 “任物”, “通五志”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臟腑 및 經絡의 생리활동을 통솔할 수 있다. 이에 心의 神明은 臟腑, 經絡의 생리적 기능 및 精, 氣血, 津液의 운행을 조절하게 되니, 後天이 先天을 자양하는 바 腎精이 충분하면 腦神이 化生하는 근원이 될 수 있다.

여기에서 心과 神의 관계를 다시 살펴 보건대, 이른바 ‘마음’으로서의 心은 神과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로서, 心의 상태에 따라 元神 또는 欲神의 勝함이 나타난다. 이에 『靑華秘文·心爲君論』에서 “蓋神亦役心, 心亦役神”이라 하였고, 또한 『靑華秘文·神爲主論』에서는 “蓋心者君之位也, 以無爲臨之, 則其所以動者, 元神之性耳. 以有爲臨之, 則其所以動者, 欲念之性耳.”이라 하였으며, 張錫純은 『醫學衷中參西錄·人身神明詮』에서 “夫丹經祖述黃帝, 原與「內經」相表裏, 歷代著作雖不一致, 而莫不以腦中爲元神, 心中爲識神. 元神者, 無思無慮, 自然虛靈也. 識神也, 有思有慮, 靈而不虛也.”라고 하였다. 즉 요지는 心의 虛靈함을 통해 元神이 감응케 함으로써 先天之氣가 충족되게 하는 것이다.

16) 同上

17) 同上

IV. 結 論

이상의 내용에서 “心主神明”이나 “腦主神明”이나 하는 문제에 대해 먼저 神明의 개념에 대해 살펴보았고, 이로부터 문제의 본질이 결국 인간의 ‘意識’을 주관하는 곳에 대한 논의라는 생각에서 神明과 ‘마음’을 구별하게 되었다. 따라서, 본 문제는 인식과 판단의 주체인 ‘마음’이 의지하는 바로서의 藏象적 근거를 논하는 것이 되었고, 이에 그 藏象적 근거로서의 心과 腦의 본질적 역할을 살펴보았다.

心, 腦와 神明의 관계에 대한 논의는 본질적으로 神, 그리고 神明이라는 용어가 지니는 의미의 多義성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며, 역대문헌에서 보이는 神의 先後天적 개념들에 대한 이해 또한 필요하다. 神明을 주관하는 곳과 관련된 논쟁에서 문제가 되는 腦의 역할에 대해서는 역대의 문헌에 많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 정신활동으로서의 神을 통솔하는 기능에 대해서는 주로 道家의 전적에서 일찍부터 많이 다루어졌다. 그런데, 의학에서 정신활동의 主宰로서의 腦가 본격적으로 주목받기 시작한 것은 明代의 醫家인 李時珍이 역대 道家典籍에서 ‘泥丸’ 등의 용어로 언급되던 것을 腦라고 지칭하면서부터라고 볼 수 있다. 그후 서양의학의 영향 및 임상적인 관찰 등의 영향 하에 정신활동을 腦와 관련짓는 경우가 많아지기는 하였으나, 중국에서 明清代 이후로 다수 제기되었던 腦에 관련된 언급은 전통적인 “心主神明”의 관점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腦의 기능에 대한 이론을 보충함으로써 인간의 정신활동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힌 것이라고 볼 수 있다.

[參考文獻]

1. 歐陽禎人, 「《太一生水》與先秦儒家性情論」, 簡帛研究, 2003.4.
2. 熊鐵基, 「對“神明”的歷史考察」, 郭店楚簡國際學術研討會論文集, 湖北人民出版社, 2000.5
3. 彭浩, 「一種新的宇宙生成理論」, 郭店楚簡國際學術研討會論文集, 湖北人民出版社, 2000.5
4. 張俊龍, 「中醫腦理論演進軌迹」, 山西中醫學院學報, 第2卷 第3期, 2001
5. 金香蘭, 「中醫腦髓學說源流考」, 中國中醫藥報, 1997年 第12卷 第5期
6. 徐瑛, 「明清時期腦的學說發展學要」, 遼寧中醫雜誌, 第31卷 第12期, 2004
7. 王勇, 「“腦神”與“心神”辨析」, 山東中醫藥大學學報, 第26卷 第5期, 2002
8. 張其成, 「李時珍對人體生命的認識」, 中華醫史雜誌, 第34卷 第1期, 2004
9. 劉永明, 「『黃庭內景經』的腦學說和心腦關係」, 宗教學研究, 2005 第1期
10. 王穎曉, 「中醫神明之爭析疑」, 遼寧中醫學院學報, 第7卷 第2期, 2005
11. 丁彰炫, 朴贊國, 「神에 대한 연구-《黃帝內經》을 중심으로-」, 경희한의대논문집, 제19권 제2호, 1996
12. 張伯丹, 『玉清金笥青華秘文金寶內煉丹訣』, 新國學網